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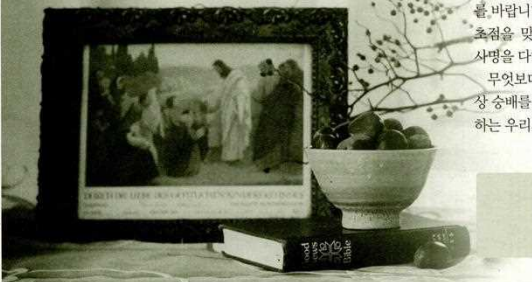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복음 안에서 누리는 연휴와 추석 명절

“내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잔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추석 명절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랜 동안 보지 못한 친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휴까지 겹쳐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휴와 친지와의 만남으로만 기뻐한다면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이번 연휴와 추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행 1:8; 막 16:15).

무엇보다도 추석 때 행해졌 그릇된 제사와 우상 숭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행 17:16). 소위 유교의 ‘효’를 앞세워 죽은 조상을 신처럼 섬기며 절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 10:20). 자신들의 행통한 삶을 위해 이미 죽은 영혼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러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벧전 2:5). 모든 예배와 집회는 이번 기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웃고 즐기는 연휴와 명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녁예배 시간 변경(수요 2부 예배, 금요일집회)

이번 주 수요일(4월), 수요 2부 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추석 가정예배 모범(7면 참조)

크리스마스 메시지② (금요일집회)

완전한 평강

(사 53:5)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평화의 나라는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난 후 250년 안에 바람의 먼지처럼 사라졌다(대상 17:14,15).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다(왕상 12:20). 몇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왕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탐욕자들이 되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총의 일들을 잊어버린 자들이었다(사 1:2,4).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이사가야 살았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다. 다윗 왕으로부터 이사가 선지자까지의 역사는 참으로 분주하고 무질서한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사는 B.C. 735년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였다(사 1:1). 그 당시의 남유다는 멸망을 눈앞에 둔 절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외쳤다. 지금의 세대와 다를 것이 없이 공포와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평화의 메시지를 외쳤다. 우리 자신들도 진정한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확실하게 증거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사 48:18)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는 평강의 선지자로 사역하였던 것이다. 이사가 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특별한 멜로디가 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며 또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깨달아야 함과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여 줄 구원자가 계시다는 내용이다(사 22:3). 인류는 자신의 욕망을 좇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었다(사 2:6). 이사가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구원자가 꼭 필요한 자들이다. 바로 그분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주제로 이사를 시작한다(사 1:18).

우선 이사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자들이 나 온다(사 1:5,6).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들로 인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이 비합리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갈라졌다. 그 중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허다하다. 어떤 것은 권위 수도 있다. 우리는 점점 죄에 빠져든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게 되고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게 되고 만다. 옛 수로 군대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이사가 선지자는 질책과 구세주를 계

속하여 기다리라고 용기를 주었다. 이사는 어딘가 멀리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리를 들었다(사 7:14). 그 구속자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죄로부터 벗어나 주실 것이다(사 1:18, 43:25).

이사가 확신한 그 한 아들은 기묘자요, 모서며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사 9:6,7). 그 나라를 존귀케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분이시다. 그는 죽기까지 그의 생명을 쏟아 부을 것이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다. 더욱이 이 구속자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사 2:4). 아무리 이방의 군대가 갖고도 힘겨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님을 이사는 외쳤다(사 8:10). 하나님의 백성을 평화 속에 보호하시기 위하여 직접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음을 증거하여 주고 있다. 정치적 인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사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 속에 그의 평강을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한다(사 25:3).

진정한 내적인 평화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이다(사 26:3,4). “평강에 평강으로”라고 완전한 평강을 언급하였다. 사나운 풍랑 가운데서 내려주시는 평안함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적인 실재로 바꾸어지게 할 것인가? 이사의 비전이 극적으로 클라리마스에 이른 때인 40~50장에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구속자의 환상을 말씀하신 후에 53장에서 그의 메시지의 중심을 말씀하신다. 한 사람이 오라, 이는 그 평강을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가져다주는 자이다. 그에게는 외적으로 호모할 만한 모양도 권력도 없다. 실상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우리까지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될 것이다(사 53:2,3).

이사는 대속하는 일을 행하시는 구속자에게 임하는 그 무서운 형벌을 보았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는 기뻐하였다. 이로 인하여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하는 우리들,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 이 말씀이, 강한 창살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 피를 쏟아내듯 살아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이 은혜를 나누어 주자. 예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완전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자. 그가 찢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제재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사 53:5).

A LIVING AND HOLY SACRIFICE

(1)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2)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ans 12:1&2)

When Paul wrote to the church at Rome, he wanted the Christians there to understand that their bodies were different. He talked to them about the importance of their bodies; "Therefore I urge you,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v. 1). He was not talking about healthy and perfect bodies, but bodies that reflected the will of God,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v. 2). I want to talk about the Bible's viewpoint of human bodies, so that in our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we can present our bodies as an acceptable living and holy sacrifice to God.

God formed the human body. Genesis 2:7 says,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Many Christians do not think about this truth. They tend to focus on the genetic aspects of their DNA from their parents, which leads many parents to think that their children are their own, not God formed. In Psalm 139:13&14, David sings,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wove me in my mother's womb.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 Do you really think about your body in this way? Isaiah 44:21 says, "Remember these things, O Jacob, and Israel, for you are My servant; I have formed you, you are My servant, O Israel, you will not be forgotten by Me." In the New Testament, Paul addresses the Galatians, "My children, with whom I am again in labor until Christ is formed in you"(Gal. 4:19). God formed us, and as Christians, Christ is formed in us. Believers need to believe this!

Sin deformed the human body. Believers have to remember that God formed us, but that sin deformed us. Romans 6:23 begin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From birth, we are of flesh, "sold into bondage to sin"(Rom. 7:14). Sin really messes us up. Without Jesus, sin reigns in death (Rom. 5:21). It separates us and makes us enemies of the Lord God. Sin is a terrible thing, but God provided a narrow way, limited opportunity, for salvation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Jesus transforms the human body. His love and righteousness spiritually change us. Romans 10:9 says,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This is the good news, the opportunity God gives to everyone. "For the Scripture says,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Rom. 10:11). Amen! 1 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We are deformed, but if we confess our sins and believe in Jesus, He will transform us. He is the only

answer to our sin problem. He is the only One who can cleanse us and give us eternal life.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John 3:16 summarizes the gospel,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esus calls out to everyone,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Mt. 11:28-30). Jesus transforms us and blesses us in so many wonderful ways.

You must not let your body be conformed to this world. Jesus warns us, "See to it that no one misleads you"(Mt. 24:4). In today's world, many churches and leaders are not following the narrow way. I hear people saying, "My church or my pastor said this or that." You have to listen to the Bible. 1 Timothy 4:1&2 say, "But the Spirit explicit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fall away from the faith, paying attention to deceitful spirits and doctrines of demons, by means of the hypocrisy of liars seared in their own conscience as with a branding iron." Through the Holy Spirit, let the word of God and prayer guide you. Sometimes your own spouse, children, or friends may deceive you if you do not focus on the Bible.

The Bible clearly informs you about salvation. It tells you how God formed and sin deformed the human body. It delivers the good news that Jesus transforms believers, making them new creatures through faith in Him,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2 Cor. 5:17). It warns you not to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to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and that you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and put on the new self, which in the likeness of God has been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Eph. 4:22-24). In particular, Colossians 3:9&10 say, "Do not lie to one another, since you laid aside the old self with its evil practices,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o is being renewed to a true knowledge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One who created him." Paul boldly proclaims, "For I am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perfect it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Phil. 1:6).

My dear friend, what outlook do you have concerning your body? Are you going to spend time going to the beauty or barber shop to try to make yourself look better? Perhaps you are considering new clothes or a plastic surgery to update your appearance. Why do you continue seeking earthly things with your pride to change your image? Do not be deceived. Come to Jesus Christ and He will spiritually transform you into a perfect human being through faith. In faith, I want you to feel God's love for your body, which Jesus Christ died to save. Amen. 卐

다을 주일 설교

거룩한 산 제사

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②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김성환 목사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몸이 구별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했 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1절).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하고完備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몸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 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2절). 저는 오늘 인간 의 몸에 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조성하셨습니다. 창세기 2:7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DNA라는 유전 인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부 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로 생 각하게 만듭니다. 시편 139:13,14에서 다윗은 이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 으심이 신묘 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4:21은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 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자비들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 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믿어야 만 합니다!

타락한 몸

죄는 인간의 몸을 타락시켰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23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 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육신에 속한 자였습 니다(롬 7:14). 죄는 실제로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죄가 사 망 안에서 왕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롬 5:21). 죄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좁은 길,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극히 한정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된 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킨다. 로마서 10:9는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을 얻으리니."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라 하"(롬 10:11). 아멘! 요한일서 1:9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 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

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 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둔다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요한복음 3:16에는 복음의 핵심이 요약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 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몸

여러분의 몸이 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 오늘날 세상의 많 은 교화와 지도자들이 좁은 길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모데전서 4:1,2는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 셨으니 자기 양심이 확신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과 기도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않으 면 때때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배우자 자녀들,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몸의 회복

성경은 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창조하셨고, 죄가 그것을 타락시켰는지 말해 줍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믿는 믿음 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성경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라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겨 가는 구슬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 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엡 4:22-24). 특별히 골로새서 3:9,10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주의 형상 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 라"(엡 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더 예배하기 위해 미용실에 다니러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외모를 가꾸기 위해 새 옷을 사거나 성형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고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세상의 것을 좇아 가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완전한 인간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주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 (요 17:9-26)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다. 이 중 17장이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요 17:9).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었다(눅 23:34).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꼭 필요한 죄인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이다(요 17:11).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을 따르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세상과 적어져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멸절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다(딤후 1:12).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지”(유 :24).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이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이다(요 17:13).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때 기쁨은 넘친다.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행 5:4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매 순간 간헐한 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삶 가운데 실재(reality)해야 한다.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쉼안함은 충만하다”(찬 466장). 나의 물질적 노력의 결과로 인한 기쁨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다(요일 1:3,4).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기도이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도이다(요 17:15; 마 6:13). “악에 빠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량이다(요일 2:16). 마귀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악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감히 만질 수 없다(요일 5:18). “온 인류 마귀 꾀술로 큰 죄에 빠지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찬 397장).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요일 3:8).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거룩함에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함에 있도록 구하는 기도이다(요 17:17-19). 거룩

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전 6:20).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후 7:1).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야 한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함에 있도록 구하는 기도이다.

그들을 통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요 17:20).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다(요 10:16).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서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요 17:21,22).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요 17:24).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 겹름씩을 인도하소서”(찬 429장).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요일 3:2,3). 현재의 삶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장래에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후 4:17).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삶의 모든 대답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골 2:5).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

주님의 백성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이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으로 거룩해 되고,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빛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찬 427장).

신령한 예배를
돕는 탁아부

김선 (장로, 탁아부장)

탁아부는 95명의 교사들이 십자가 중심의 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늘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주일은 본 예배 2부에서 5부 예배(오전 8:30~오후 4:10)까지, 그리고 금요일마다(저녁 6:30~오후 8:00)는 탁아부실과 영아실을 나누어 신령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부실에서는 아기와 엄마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1부 예배 후 총회 교회주변 전도 때에도 아이들을 돌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0~3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1:1로 돌보며, 4세 이상 아이들은 6~8명을 한 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놀다가 기도로 시작하여 찬송과 율동, 수화과 풀 율동과 성경 말씀을 배우고, 다양한 종류의 만들기와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등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치가 혼란 때에도 어린 자녀들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탁아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해야 하는 탁아부의 특성상, 그리스도로 거듭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장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열매가 되어야 하며, 때로는 놀이 장소가 되기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과 청결, 쾌적

한 분위기를 위하여 여러 시설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건강검과 즐거우며 가정과 같은 안락감까지 있는 조지적이고 체계적인 탁아부가 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현재의 연령별 2개 그룹인 반 편성을 4개 그룹으로 세분화 하고, 선생님들도 연령별로 전문화하는 등 모든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 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한 달 만에 탁아부를 찾는 부모들과 기다리던 아기들이 어느 새 자라나 아장 아장 걸으며 말을 배우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납니다. 탁아부에서 맡아 돌보던 아이들이 어느 새 자라 탁아부 선생님으로 함께 봉사하고 있으며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맡기러 오는 모습을 보면 또 한 번 감사를 드리게 되며 감화가 참 새롭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순한 믿음의 아이들이 되니, 맑은 목소리의 찬양, 작지만 예쁜 율동, 다음 주일에 만나고자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더 많은 기도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탁아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 18:5). 아직 도 탁아부에 대해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에겐 계신다면 제1교육관 1층 탁아부실로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항상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의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거듭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한 한 몫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일(월) ~ 10월 7일(토)	6교구 2지역	김영주
10월 2일(월) ~ 10월 10일(화)	임마누엘 찬양대	안준모
10월 3일(화) ~ 10월 10일(화)	청년2부 3팀	양기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금) ~ 10월 6일(금)	12교구 5지역	예정호
9월 29일(금) ~ 10월 7일(토)	청년2부 2팀	석영식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1부 5팀	김중선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2부 4팀	이정탁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9일(화) ~ 9월 28일(목)	16교구 7지역	이상범
9월 20일(수) ~ 9월 27일(수)	6교구 5지역	이세영

성령님의 인도하심

영성 훈련 때 귀찮게 생각했던 선교 구호가 선교 현장에서 팀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로서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 피곤하고 지쳐 '자아'가 고개를 들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말씀으로 하리때를 통일 수 있었으며, 또한 팀에게 허점이 생길 때 십자가로 팀을 무장시키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25개의 선교 언어 십자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감사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의 폭도 넓혀 주었으면 하는 소망도 생겨났다.

선교지에서는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그를 종교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다.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도임을 간구하였다.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도임을 간구하였다. 가장 연약한 팀이었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간섭과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가슴에 잘 박힌 뜻과 같이 십자가 복음만이 각인되어서 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선교 현장을 떠나왔다.

최계촌(권사, 16교구)

오직 순종하라!

주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라"라는 것이었다. 예상 외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현지인 정도 대상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팀장님은 새로운 마을로 가서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팀장의 지도에 절대 순종하라는 선교 구호가 기억나서 팀장님의 뒤를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마침 100여 명 이상 되는 마을 주민들이 광장에서 공동으로 모여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그들이 제공해 준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른 뒤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흐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마을 사람들은 비를 피해 한 곳에 모여 들었고 그들이 우리의 찬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의 찬양이 끝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달라고 모으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에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만난 90대 후반의 남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도까지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선교 훈련 시에 자기 부인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를 철저히 깨달았다.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체험했기에 선교를 떠날 때보다 더욱 활기차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동준(교사, 고동부)

“예수님은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난히 잊혀지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 그 중 햇볕이 내리쬐는 길에서 자전거를 옆에 놓고 영영 울고 계시던 할머니가 생각난다. 무슨 일인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영영 울고만 계셨다. 한 시간쯤 지나 다시 가 보아도 그 자리에서 울고만 계셨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슬프게 했는지 내 마음도 아파왔다. '자식 문제인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크게 다쳤을까? 아니면 금전 문제인가? 아니면 할아버지와 크게 싸우셨을까?' 나는 용기를 내어 가만히 다가가 할머니를 살짝 안아 주었다. "울지 마세요! 할머니! 예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할머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힘껏 전하였다.

이후에 입에서 술 냄새가 몹시 나는 열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이름은 '발로자'였다. "예수님은 발로자를 사랑하십니다. 발로자!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은 발로자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거듭 입에서 외우는 '발로자'가 사랑스러웠다. 세상 근심과 염려 또는 외로움으로 괴로워하면서 이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던 우리는 복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윤숙희(집사, 6교구)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총

선교지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자본주의 물결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어 영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었다. 전도지로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키면 당장 경찰에 잡혀가는 메리트 땅에 예수님은 의로 선교를 위한 작은 동자를 예비하셨고, 사막이 아닌 뒷밭에 종자 씨들을 키울 여건을 주셨다.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매일 새로운 분들과 어린이를 데리고 오셨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향한 작은 물결을 열어 놓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처방하는 조그마한 알약만큼 작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 주셨다.

우리는 아침이면 물러드는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할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이처럼 370여 명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수백 배로 확장되고 그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흠어져 가자 호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우리보다 더욱 간절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길 기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득 부끄러워졌다. 그 나라를 위해 취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졌고, 너무도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김현진(집사, 14교구)

지나간 오십 년의 삶을 회개하며



이미 죄로 죽었던 이 영혼을 주님의 자녀삼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주일 예배와 금요집회를 통해서 저는 저의 흉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불과 얼마 전의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오십여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종교와 우상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상에 심취해 있었습니까? 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요즘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파고 들어 저의 생각과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는 제가 죄의 길을 향해 가려할 때마다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주일 성수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새가족을 위한 24주의 약육 과정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오십여 년 동안 이 못난 죄인을 기다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저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온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옥선(성도, 1교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매순간 깨달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경건과 모교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복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뜨거지고 그로 인해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같이 달고 맛있는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 심령에 사무쳐 감격하고 감사하여 잠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 주체할 수 없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인 사람이 되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편의 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만분의 일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구는 교구 식구들이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종량구, 동대문, 구리, 남양주 등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데만 대략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십자가의 은총이 정말 귀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이 느껴집니다. 제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

이윤준(집사, 9교구)

회개 그리고 은혜

유아부에서 처음 우리 반 아이들과 만난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살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지기 싫어서 나를 보고 낯설어서 “앙~”하고 울어버렸다. 비교적 나에게 잘 다가오던 아이도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응?” 하고 되묻기를 여러 차례... 그러고도 못 알아 들어서 미안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직 아이들에게 익숙한 용어와 말투를 골라 쓰는 것도 어색해서 아이들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

첫 분반 공부 시간의 말씀을 성찬에 관한 것이었는데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구원, 성찬에 대해 전해 주는 일이 쉽지 않아서 얼마

나 절절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

야 할 교사가 준비도 없이 기도도 없이 교사의 자리에 섰다는 것이 주님과 아이들 앞에 부끄러워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첫 주를 해매고 나서 다음 주일이 오기까지 온통 어떻게 내살 난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해 보려고 해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놀랍게 말씀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아이들은 참 정직하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꼴몰래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면 배우는 대로 흡수해서 하루가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간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분반 공부 시간이면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노라면, 내가 봐도 이렇게 귀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잇별 같은 보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데 한 아이가 ‘십자가~’라고 외치는 게 아닌가! 너무 작아서 부처님 같지만 같은 어린이들을 처음 대했을 때 ‘이 아이들이 과연 말씀을 이해할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걸까?’라고 의심했던 미련한 교사였음을 나는 회개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살 난 유아와 스물 일곱살 난 교사가 믿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놀랍고 감사하다.

특히 이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찬양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다. 이 찬양을 할 때면 가사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즐겁고 기쁘게 찬양한다. 우리 반 아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다. 또한 교사로서 세움받는다라는 것이 만나게 하신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두고 기도할 책임을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가 주 예수 복음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김미경(교사, 유아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설교문)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난 100여 년간은 정말 놀람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말을 이용한 동력만 생각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시간에 150km를 달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100층짜리 건물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비행기나 로켓, 미사일 같은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주석과 같은 어떤 특정한 아이템의 가치에 대해서 추측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이 세상과 인간들, 자연, 관습,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8).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일부는 썩어져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인류의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변화가 없으신 놀라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반대

주석 가정예배

◆ 찬 송	 133장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말씀봉독	 히 13:7-9	 인	도	자
◆ 말씀선포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인	도	자
◆ 통성기도		 다	같	이
◆ 찬 송	 93장	 다	같	이
◆ 주기요문		 다	같	이

로 기분이 나쁘면 비참하다고 변덕을 부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퇴색하지 않고 반짝이는 수정과 같습니다. 지난 이 천여 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를 꺾아 내리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눅 23:34; 사 1:18). 그분의 권세는 장엄하며 영원하여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마 28:18).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된 이후로 결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지켜보

시며 항상 도우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히 13:5).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확신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무상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리라"(계 22:1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여기에는 예수 안에 완전한 보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제사를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 10:12)

매년 이맘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제사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선 죽은 조상의 혼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혼도 종교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혼백이 배회한다면 다시 찾아와서 제사의 공양을 받는다는 생각은 무식 신앙일 뿐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죽는 순간 그 영은 그 시체에서 떠나며 자의로 다시 찾아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생각은 주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원시 신앙에서는 과일 현실을 혼돈합니다. 꿈에 나타난 조상이 바로 그 조상의 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는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속죄 제사였습니다(레위기 4장). 그 제사는 피를 흘리고 뿌려 드렸고 재물을 온전히 불사랐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이 제사를 드려서 큰 복을 받아 내자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음과 정성

을 다하지 못한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재물을 다시는 가 저오지 말고고 책망하셨습니다(이사야 1장).

그러므로 성경의 제사는 마음을 담은 진실한 회개와 함께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곧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회개, 겸손, 의와 화복 그리고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더욱 중요한 의미는 이 제사들은 계시적이며 예표적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그의 자녀로 만나 주시며 영접해 주심에는 그분 자신이 지불하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이 주님 자신이 지불하시는 희생을 재물 위에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죽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운 사람이 구체적으로 상징화되어 계시된 것이 제사이며 재물입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골 1:20).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히 9:26). 그 역사적인 예표가 곧 제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편집실)

교 회 소 식

모임

1. 안수집사 10월 월례회
일시: 2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릴리움

별세

1. 박윤선 씨(홍기운 집사의 모친, 차재은 성도의 시모, 9교 구 공로구경) / 22일 별세, 24일 장례
2. 김커운 성도(윤영송 집사의 시모, 1교구 한서2구역) / 25

일 별세, 27일 장례

3. 우후분 타고 은퇴권사(김종훈 집사의 모친, 김인숙 집사의 시모, 4교구 삼정1구역) / 25일 별세, 27일 장례

결혼

1. 이말현 군(이상필 씨, 이교일 씨의 아들, 19교구)과 황재희 양(황영학 성도, 지인숙 권사의 딸, 13교구) / 3일(화) 12:00 갈릴리움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 일 시: 10월 4일(수), 수요 2부 예배 시

◆외선부 가을 수련회

- 주 제: '믿음으로 십자가'와 '나고자'(마 16:21~27)
- 일 시: 10월 6, 7(금, 토) 오전 11시부터
- 장 소: 외선부 예배실 및 기타 장소

◆유랑 안내

이번주 수요일(4일) 수요성경공부는 휴강합니다.

◆기도원 집회 안내

이번 주 화요일(3일), 금요일(6일) 기도원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단 화요일에는 정상적으로 하며 기도원 금요일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 짜	시 간	학 습 소	장 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 소	유아세례자	장 소
10월 6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최종필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정종선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교론 (이상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준 목사)	교육관 304호		
10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최종필 목사)	309호	세례란? (최성규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 세례란? (안지현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10월 22일 (주일)		성인 학습·세례식(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마감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마감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신상수	김준희/부병창	이창수/홍용석	이재영/표왕철	윤수일/양한원	황진섭/이복순B	장 훈/강호수

예배담당 안내 (10/4-10/8)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10/4	수요 I	그리스도의 피 (행 20:26-28) 김성관 목사	안치원	이인숙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지고 (호산나 찬양대)
10/4	수요 II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상 21:3) 류병희 목사	이성진	장철환	주 음성 외에는 (실로암 찬양대)
10/6	금요일 예배	김성관 목사	장 훈		바이올린 박 민 / 10교구
10/6	주일 I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황진섭 목사	이재성	이태식	〈예배 전 찬양〉
10/8	주일 II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김성관 목사	김준희	박상대	이 세상의 친구들 외 / 소프라노 김소연 (전일 독창자)
10/8	주일 III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김성관 목사	류병희	김건근	거버니먼트 예수여 외 / 소프라노 김소연 (전일 독창자)
10/8	주일 IV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고광환 목사	이영준	이원천	나 주의를 돌음 받고자 외 / 비올라 오미가 (아연 오케스트라)
10/8	주일 V	거룩한 산 제사 (롬 12:1-2) 이경준 목사	김익환	노영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외 / 여성 중창(별명 찬양대 솔리스트)
10/8	주일집회	바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롬 4:18-25) 안치원 목사	이창수	김대용	여교역자 중창단 / 만민단 연주부 / 실로암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전 7:00	본 당
금요일 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화요일 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출발
	금요일 아침 10:30	금요일 주 분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인도네시아어 등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ven Orchard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갈 리 리 움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직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9월) 오후 1:00(10월)	제2교육관 1층
타 이 부	(화) 오후 8:30~오후 1:40 (금) 저녁 6:30~제복 9: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대 바 나 홀
충원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경신장영인교부	주간교육	충원 복자관
국내외전선교부	오전 11:00	아 뎌 홀

10월 추헌 기도회 창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시며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제3차 정기회 훈련(10월 27일 금요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메일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헌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통산·복자)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교회 요지는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소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이병학	이 훈
가곡원	가곡원	가곡원	가곡원	가곡원
남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득
	8교구	1교구	1교구	1교구
김광남	이종식	임무현	전종훈	전종훈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이정우	김단용	한승국	김영수	김환기
전도원	전도원	전도원	전도원	전도원
원용철	이형수	안동원	황인하	김구형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최윤덕	이계인	박덕영	이태식	장태두
선교부	선교부	선교부	선교부	선교부
박용규	권명호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김서원	김서원	김서원	김서원	김서원
이신호	최지훈	노영환	박철구	전정철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신상수	고재수	강철형	김영은	이달용
14교구	14교구	14교구	14교구	14교구
장철환	김승문	한철주	윤석민	전정현
11교구	11교구	11교구	11교구	11교구
안석원	김건근	김창국	김준선	임창식
3교구	3교구	3교구	3교구	3교구
김은철	전학재	김신국	전계식	장승규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전은배	석영익	구재환	송두성	최자은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제2교구
신산길	유상대	박상대	김규식	신광철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5교구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안창득	나광영	정진호	이희철	위진광
김익환	장훈	임태식	이희철	최종철
하종철	안지현	장종선	안재홍	이성진
최성규	이재영	김영수	김준희	김준희
윤승민	황인하	이정훈	김영수	유재진
장영구	장성원	김철규	김철규	김철규

■ 어전도사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우주
김갑자	안태수	김정연	강덕철	최문실
전은희	김경자	김경희	이복순A	류진희
한성일	임태두	강명익	유복순B	이복순B
장효숙	김영수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 찬양감독 강영진

■ 찬양지휘자 서문선 김원섭	■ 찬양감독장 김소연	■ 찬양단장주 장연희
■ 선 고 사 송요한		